

# 도교육청 세계잼버리 유치 측면지원

## 학생·교직원들 모은 해외 나눔 행사 물품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 전달

전북도교육청이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지원을 위한 해외 나눔 행사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7일 오후 3시 제1주차장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합동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물품은 의류 3만2,152점, 신발 2,938점, 가방 1,419점, 모자 1,832점 등 총 38,341점이며 이 중 600상자 3만 4,053점은 해외 나눔 행사에 기부됐으며 나머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달 초 도내 6개

시 지역과 완주군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재활용 물품을 기부 받았다.

기부 물품은 의류, 신발, 모자, 가방 4종으로 기부 받은 물품은 1·2차 선별과정과 박스화 작업을 거쳐 컨테이너에 적재했다.

이번에 기증된 물품은 해외 운송을 통해 아프리카 짐바브웨 스카우트연맹에 물품을 보내면 현지 스카우트 단원 및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은 물품이 꼭 필요한 지역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2023 세계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돼 전북이 세계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효천지구 등 현장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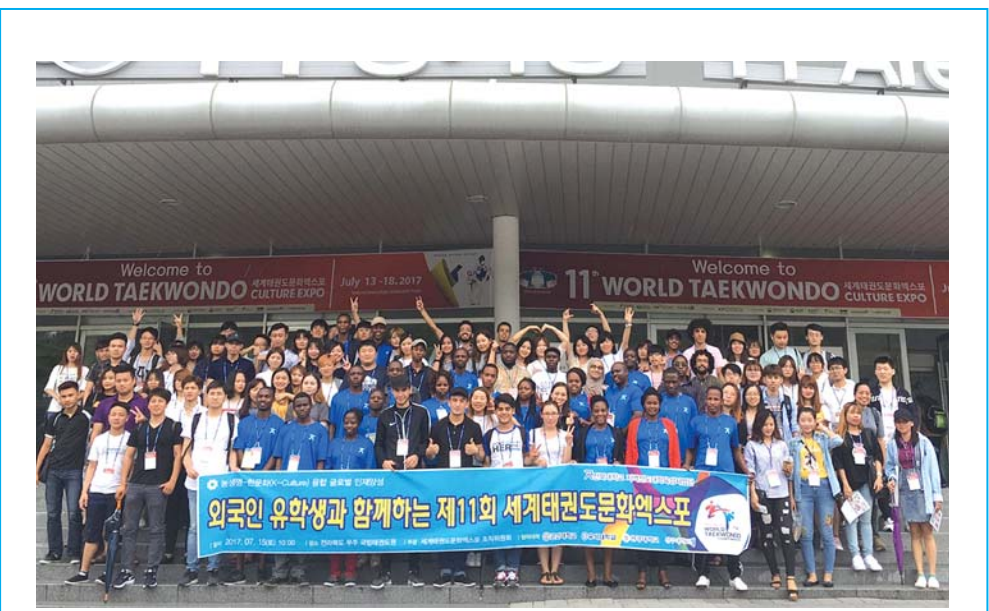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문화대 2공원 보수정비 사업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오는 8월 미로정원 조성 준공을 앞둔 문화대 2공원 보수정비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원 물담 및 전망용 팔각정자, 조명, CCTV 등 주요 시설과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을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이어 효천지구 내 1120세대 규모의 우미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역 자재와 중장비 등이 아파트 건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병하 위원장은 “도시 속 휴식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며 “타지역 건설업체들이 도내 주택건설시장을 독식하면서 지역 업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유학생 150여명이 지난 주말 무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여해 중추적인 한국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 전북 유학생들, 태권도 매력에 흠뻑

## 전북소방본부, 올해 상반기 평균 19분마다 출동

전북소방본부가 2017년 상반기 구조 활동 분석 결과 1만 3,682회 출동, 10,848건의 구조활동을 하였으며, 2,029명을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체 출동건수는 5.5%, 구조건수는 6.8% 증가하였으나 구조인원은 16.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동건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화재, 동물구조, 생활민원 출동 등 사회 안전의식 확대에 따른 구조수요 증가와 생활안전에 대한 119구조서비스 확대로 분석됐다.

제때한 구조급과장은 “119구조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시민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대 등 도내 4개 대학 유학생 150여명이 지난 주말 무주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여해 중추적인 한국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이들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요청으로 집미아의 정 부초청 장학생인 필립(전북대 컴퓨터공학전공) 학생을 비롯해 18개국 유학생들은 자국 대표로서 개막식 행사 자국 기수를 맡는 등 개막식 행사에 주요 역할을 맡았다.

또한 조직위가 마련한 태권도 체험 등에도 참여해볼으로써 한국 태권도의 정수를 체득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유학생 참여 행사는 지난 6

## 지역선도대학사업 유학생 태권도문화엑스포 체험 개막식 자국 기수 맡아 태권도 체험 등에도 참여

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MOU를 통해 진행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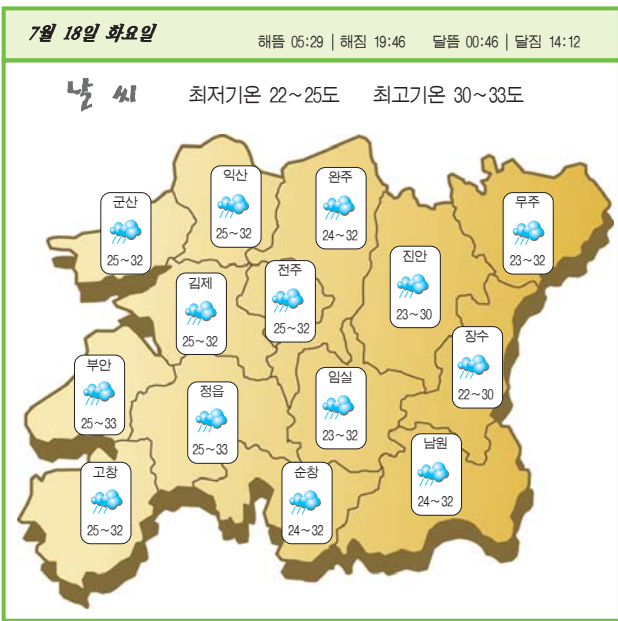
이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유학생들에게 태권도를 통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1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태권도 중추국 한국을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전 세계 태권도인의 대표 축제로 18일까지 품새, 겨루기 등

의 대회와 축하공연, 전문문화체험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정성석 전북대 대외협력부총장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도내 유학생들이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우리 교육 무에인 태권도를 직접 체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더욱 이해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유학생들을 통해 더욱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양성하고 지방 대학간 연계협력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및 지역사회 인재 양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 현재 4년 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전북교육청 '안전교육자료' 매주 보급

전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매주 '사이(E) 좋은 안전교육' 자료를 유초중고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시간별, 계절별, 장소별 등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사이(E) 좋은 안전교육' 자료를 개발해 주간 단위로 매주 월요일 도내 각급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 자료에는 학교안전계획회 학생사고 자료를 분석하여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 주간 안전사고 예보,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학교차별 안전사고 토론 교육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해당

학교 교감에게 메시지를 통해 보급되면 교감은 교내 교사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과 담당교사가 수업시간이나 담임교사가 조회/종례시간을 활용하여 '5분 내외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안전습관형성과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E) 좋은 안전교육'이란 누구나 안전할 권리(Everyone), 매일 매일 안전할 권리(Everyday), 어디서나 안전할 권리(Everywhere), 모든 것(상황)에서 안전할 권리(Everything)를 의미한다. /정해은 기자

## '교사 성추행' 학교장 "전혀 몰랐다"

부안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수업명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지역사회가 시끄러운 가운데 해당 학교 교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17일 전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부안의 한 여고 김도 교장은 "교사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교장은 거듭된 도원들의 질문에 "이번 일에 사죄를 한다"며 "그러나 성추행 등의 일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해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교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전북도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이고, 경찰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사가 끝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이 학교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성추행 교사를 포함 총 10명의 교직원에게 대해 위법 여부를 확인했거나 확인 중이다. /뉴스

#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백두대간 역사관

3D 에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